

페루, 광산개발 주민반대 심각

몬테리코 광산개발 투표서 주민 90% 반대 ... 하수시설 · 병원건설 요구

페루 북부 완카밤바 3개 지역 주민들은 영국 광산개발기업 몬테리코 메탈즈의 광산개발 계획을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수천명은 몬테리코가 주도하는 <리오 블랑코> 광산개발이 결국에는 식수를 오염시키고 작물을 해치는 등 환경피해만을 유발해 현지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유효투표 90%의 반대로 개발안을 거부했다.

페루 정부는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정부가 이미 허가한 광산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광산 개발 반대론자들은 경제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물은 페루의 주요 수출품으로 금, 아연 그리고 구리의 수출량은 세계 5위권에 진입해있다.

그러나 광산개발기업들은 현지인들을 적게 고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페루의 환경관련법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주민들은 외국기업들이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으며 현지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먼저 하수시설과 병원 등의 건설을 약속하지 않는 한 주민들은 광산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9>